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의 경제구조 변화에 관한 고찰*

- NAFTA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이 전** · 백 종 국***

A Study on the Economic Structure of Mexican Northern Borderlands in Relation to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Jeon Lee** · Jong-Gook Back***

요약 : 1994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발효한 NAFTA로 인하여 2001년 1월 1일까지는 멕시코·미국·캐나다 사이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다. 멕시코 북부지역의 변화는 이 지역의 도시성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경지대에서 쌍둥이 도시화가 매우 급속히 진행되었다. 오늘날 멕시코 도시 순위 10위권 이내에 드는 세 도시(Ciudad Juarez, Tijuana, Mexicali)가 북부 국경지대에 위치한다. 멕시코 북부지역은 동서의 교류보다는 남북의 교류가 많았다. NAFTA로 인하여 멕시코 북부의 여러 하부지역들은 동서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으로 통합되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의 산업 발달은 멕시코인들에게는 고용기회를 확대시키고 미국인들에게는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NAFTA는 경제수준의 차가 큰 두 체제 사이의 경제통합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세계적으로 전개될 지도 모르는 지역주의적 경제통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주요어 :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 국경지대 산업화계획, 마킬라도라, 북미자유무역협정, 쌍둥이 도시화

Abstract : This paper's main objective is to present an assessment of the impact of NAFTA on the economic structure of the Mexican northern borderlands. The NAFTA is the strategy of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first mentioned by Salinas in June 1990 and established since January 1994. Mexican government permitted factories called maquiladoras at the northern borderlands for the first time in 1965. In the early 1980s Mexico was in a deep economic crisis and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was adverse to Mexico. Mexico began to move toward an open economy and abandoned the 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model that characterized Mexico since the 1930s. Through the new economic reform, the market system was preferred to the regulation; the private ownership, to the public ownership; and the competition, to the protection. The most phenomenal urbanization in northern Mexico has occurred around the major crossing points along the Mexico-U.S. border. The rapid urbanization in northern Mexico has been much due to the industrialization, brought about by the maquiladora programs and, recently, by the NAFTA.

Key Words: Mexican northern borderlands, BIP, maquiladora, NAFTA, twin urbanization.

1. 들어가는 말

멕시코(Mexico)의 공식명칭은 멕시코주연합(The United Mexican States; Estados Unidos

Mexicanos)인데, 흔히 간략하게 멕시코라고 부른다. 멕시코는 31개의 주(states)와 1개의 멕시코시티 연방구역(the Federal District of Mexico City)으로 구성되어 있다. 멕시코의 면적은 197,25만km²로써

* 이 논문은 1996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지역연구)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

** 경상대학교 사회대학 국제관계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t. of International Relations, Gyeongsang National Univ.)

남한 면적의 20배에 해당하고, 인구는 1997년 약 9,500만 명으로써 남한 인구의 2배가 넘는다. 멕시코의 도시화율은 71%에 달한다. 멕시코 인구의 60%는 메스티조이고, 29%는 인디언이며, 9%는 유럽계 백인이다. 멕시코는 지하 자원이 풍부한데, 특히 북부지역에서 그 산출량이 많다.

1910년 발발한 멕시코혁명으로 1917년에 신헌법이 제정되었고, 1929년 제도혁명당(PRI)이 탄생하였다. 제도혁명당은 토지소유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였고, 석유자원 개발로 얻은 부를 분배하였다. 또한 도로망을 확충시키고, 학교를 세웠다. 혁명적 정통성과 통치 성과에 힘입어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안정을 누리고 있었는데, 1960년대에 이르러 멕시코 체제는 점차 불안정의 증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혁명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제도혁명당 장기집권에 따른 부패와 수입대체산업화의 애로로 말미암아 체제내의 반발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수입대체산업화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로 민영화(privatization)¹⁾를 통하여 공공부문의 비중을 낮추고자 하였다. 멕시코의 민영화는 데 라 마드리드(Miguel de la Madrid) 대통령 재임시기(1983-1988년)부터 서서히 추진되다가, 살리나스(Carlos Salinas de Gortari) 대통령 재임시기(1988-1994년)에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멕시코는 1983년 1,000개 이상의 국영기업을 갖고 있었으나, 1993년 200여 개의 국영기업만을 소유하게 되었다. 현재의 세디요(Ernesto Zedillo Ponce de Leon) 대통령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Teichman, 1995, pp.3-4).

멕시코의 살리나스는 1988년 7월 6일 대통령선거에 당선되어 그해 12월 1일 정권을 이양받았다. 살리나스는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였고, 국가소유 부동산의 상당량을 매각하였다. 그리고 관세를 낮추는 등 수출입장제를 제거하고,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살리나스는 미국과 무관세 조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총력을 다하였고, 마침내 1992년 8월에 미국과 NAFTA 체결을 합의하였다.

살리나스 정부의 제반 조합주의적 기구들은 NAFTA를 지지하기 위해 1990년부터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즉, 수출증대와 균형재정, 선진 기

술과 외국 자본의 도입, 시장의 확대, 실업의 감소 등이 NAFTA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주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창은 멕시코의 신자유주의적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를 비롯한 세계의 주요 기관들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1994년에 멕시코는 다시 수렁에 빠져들고 말았다. 치아파스(Chiapas)주에서 인디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또한 제도혁명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무리에타(Luis Donaldo Colosio Murrieta)가 23세의 공장 노동자에게 암살되었고, 암살의 배후에는 어떤 음모가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멕시코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갔고, 투자가 위축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이자율을 높임으로써 멕시코의 증권시장을 달구었던 핫머니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결국 세디요 대통령은 페소貨를 평가절하하였고, 심각한 경제불황이 뒤따라 왔다. 멕시코의 금융위기는 1994년 12월 시작하여 1995년 1월 절정에 달하였다.

1995년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다 체포된 멕시코인들이 120만 명이 넘었다. 멕시코에서 젊은 이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반란으로 치닫기 이전에 이러한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불법이출은 멕시코 위기에 대한 확진 역할을 한 셈이다. 멕시코에 대규모 사회적 시위가 없었던 것은 아마도 미국 이주라는 도피 출구가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는 이러한 과정에서 매우 의미있는 지역이 되어갔다. 첫째, 수많은 멕시코인들이 멕시코 체제에서 탈출할 때 거쳐가는 지역으로 간주되었다. 둘째, 멕시코 내륙지역에 비해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으로서 미국-멕시코 사이에 존재하는 극단적인 빈부격차의 완충지대가 되었다. 셋째, 멕시코 내륙지역의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마킬라도라 산업을 중심으로 긴급한 외환을 끌어들이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에는 '쌍둥이 도시화(twin urbanization)' 등 매우 흥미있는 지리적 현상이 나타났다(그림 1).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NAFTA 체결을 전후하여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멕시코 북부지대의 경제구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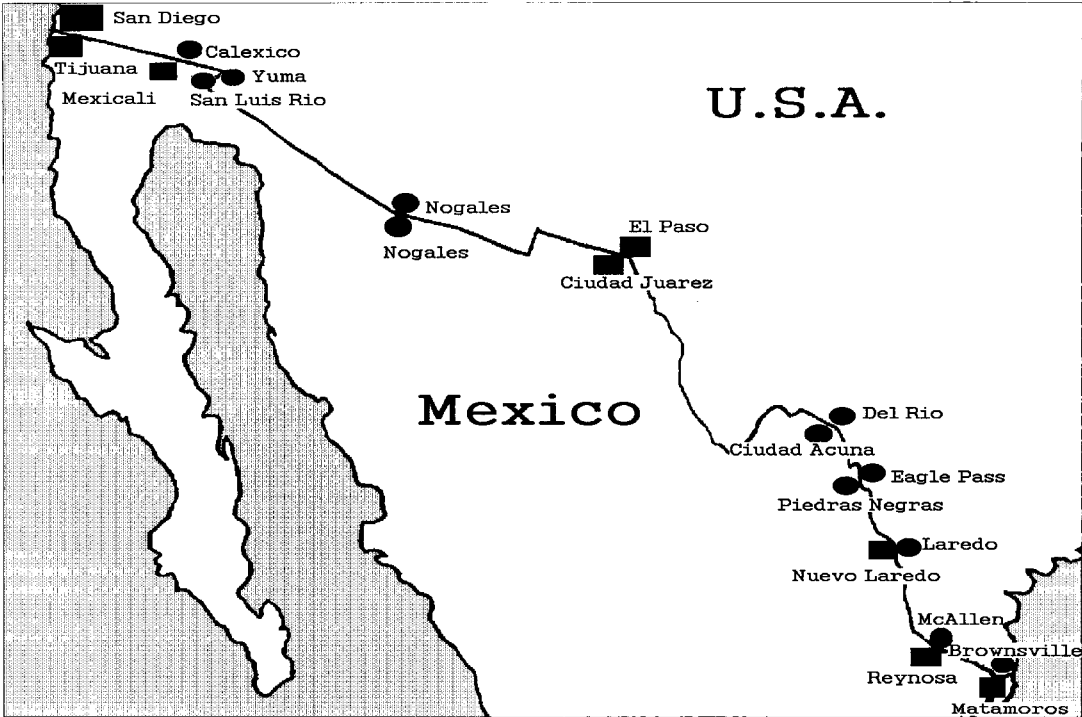


그림 1. 멕시코-미국 국경지대의 쌍둥이 도시들

연구가 인문지리학자와 정치경제학자간의 학계간 연구이기 때문에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의 지역 변화를 고찰하는데 특히 정치경제학적 변수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의 동태적 지역 변화를 굳이 특정한 미시적 모델이나 이론을 검증하는 수준에서 설명하거나 혹은 거시적 이론의 틀로서 엮어매어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한 현지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서 수행되었다. 제1차 현지조사는 1996년 7월 17일부터 8월 7일 동안에 수행되었으며, 제2차 현지조사는 1997년 1월 3일부터 1997년 1월 31일 동안에 수행되었다. 양차에 걸친 현지조사에서는 태평양 연안에서 멕시코만 연안까지 멕시코-미국 국경지대를 왕래하면서 전반적인 경관을 이해하고 또한 핵심적 현안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Arizona State University, UCLA, UC San Diego, UNAM, Colegio de Mexico 등에서 다수의 참고문헌을 수집하고 전문가들을 면담할 기회를 가졌다. 현지조사에서는 기층민들의 NAFTA에 대한 견해

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2. 마길라도라의 연혁과 성격

‘마길라도라(maquiladora)’는 간략히 ‘마길라(maquila)’라고도 부르는 스페인어인데, 미국에서도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스페인어 그대로 부른다. 마길라도라라는 말은 산업프로세스의 부분적 활동, 즉 하청업자에 의한 조립활동 혹은 포장활동 등을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원래의 마길라도라 계획은 국경선에서 20km이내의 지역에 한정하여 재수출을 전제로 설비·원료·기계·부품의 면세 수입을 허용하고, 이로써 멕시코인의 노동력과 외국의 기술 및 자본을 활용하는 조립방식의 생산활동을 통해 보세가공무역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마길라도라 계획은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시행 지역 제한과 제품의 국내판매 규제 등 매우 제한적인 내용으로 출발하였으나, 점차로 이러한 제한적 규정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1) 마길라도라의 출현과정

제2차세계대전 동안에 많은 미국인들이 군인으로서 출전하게 되자 이 자리를 메우기 위하여 미국 정부의 지원하에 멕시코인 농장노동자들(braceros)이 미국 농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비록 미국의 종교단체·노동조합·농장노동자들이 이 브라세로 제도(bracero system)를 거세게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1942년 시작되어 1964년까지 지속되었다. 1964년 무렵에는 멕시코인 농장노동자들을 대체할 만큼 미국 농업의 기계화가 진척되어 있었다(Krooth, 1995, pp.277-278). 멕시코 정부는 브라세로 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줄어든 일 자리를 다른 방법으로 늘리기 위해서 브라세로 제도가 폐지된 다음해인 1965년 국경지대 산업화계획(BIP: Border Industrialization Program) 법률을 제정하였다.

마길라도라가 필요로 하는 원료는 가공처리하여 반드시 수출하겠다는 약정하에서만 수입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마길라도라는 종종 '보세산업(in-bond industry; 保稅産業)'이라고 불려왔다. 그런데 1982년 이후부터는 재수출하겠다는 구두 약속(verbal promise)만으로도 마길라도라의 원료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마길라도라는 '쌍둥이 공장(twin plants)'이라고도 불려왔다. 쌍둥이 공장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기업이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양쪽에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안에 기인한다. 미국 쪽에는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생산공장을 세우고 멕시코 쪽에는 노동집약적인 공장을 세운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 쪽에 창고나 오피스를 위치시키는 경우는 드물지 않았지만 첨단산업공장을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비록 처음에 의도한 대로 미국-멕시코 양쪽에 공장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오늘날에도 마길라도라를 흔히 쌍둥이 공장이라고 부른다(Kopinak, 1996, pp.7-8).

2) 마길라도라의 부정적 성격

마길라도라에 대한 많은 기존의 연구들은 마길라도라가 국경지대 산업화계획(BIP)의 정책목표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Stoddard, 1987). 마길라도라가 멕시코인의 미국 불법이민을 증가시킴으로써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마길라도라는 멕시코 국내경제의 이중구조를 초래하고, 멕시코의 대미 종속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마길라도라로 인하여 지역불균등이라는 지리적 이중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Hufbauer and Schott, 1992, p.101). 사실 멕시코의 북부 국경도시들은 정치, 경제, 문화 측면에서 멕시코 내륙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국경도시들과 통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마길라도라가 멕시코의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마길라도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적 보호는 허용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마길라도라 노동자들의 직업만족도는 매우 낮다. 마길라도라의 이직률은 매우 높은데 이는 착취적 기업전략의 결과라는 것이다. 마길라도라가 비록 북부 국경지대에 편중되어 있으나, 국경지대의 노동사정은 멕시코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에 대한 투자 증가와 노동 조건은 멕시코 조직 노동자들의 대외교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북부 국경지대의 산업화는 여성노동의 착취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²⁾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Gabriel and McDonald, 1994; Gladwin and Thompson, 1995).

마길라도라 산업의 심각한 취약점은 그것이 외국자본에 의하여 통제된다는 점인데, 이를 강조하면서 마길라도라 산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Herzog, 1990, pp.53-54). 마길라도라 산업은 부품조립단계의 산업인데, 조립 전후의 단계와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업화와 더불어 수반되는 여러 가지 긍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자제품 조립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전자제품 조립에 소요되는 부품들이 미국에서 들어오고, 관련 기술은 미국에서 개발된 것이며, 제품 생산 기술도 미국에서 축적되는 것이다. 또한 조립된 제품도 주로 미국 시장에서 판매된다. 결국 멕시코 측에서는 고용증대의 이익만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3) 마길라도라 변화의 5단계

지난 30여년 동안 마길라도라는 질적·양적으로 변화하였다. 단순한 조립공장보다는 제조업공장이 점차로 많아졌다. 그리고 점차로 다수의 멕시코인

들이 전문직이나 기술직에 고용되었고, 기혼남 고용인력의 비율도 많아졌으며, 고용인의 평균연령도 높아졌다. 1996년 중반 멕시코의 총 2,241개 마길라도라 공장이 약 68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Kopinak, 1996, pp.9-18; 표 1).

(1) 제1단계(1965년~1973년) : 마길라도라의 설립기

마길라도라는 원래 브라세로(braceros)를 고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젊은 여성 노동력을 고용하였다. 마길라도라가 가장 많이 집중된 도시는 시우다드후아레스였다. 1960년대 후반에 모든 마길라도라는 주로 전자제품·장난감·가공식품 등 다양한 경공업 완제품을 조립하는 노동집약적 공장이었다. 멕시코 인력의 98%는 단순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이었고, 그 나머지 2%는 접수계원직(receptionists)이나 비서직(secretaries) 인력이었다. 미국 모회사에서 파견한 미국인들이 관리직·기술직·전문직을 도맡았다. 교육수준이 매우 낮은 멕시코 독신여성 인력이 단순노동력의 90%~95%를 전담하였다.

1972년 멕시코 정부는 BIP를 멕시코 전역(멕시코시티와 몬테레이만 제외한 전역)으로 확장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마길라도라가 내륙에도 입지할 수 있게 되었다. 마길라도라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는 북부 국경지대가 멕시코의 다른 지역과 잘 통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마길라도라를 멕시코 전역으로 확장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마길라도라가 입지하는 북부 국경지대만을 따라서 임금이 오르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마길라도라가 멕시코 내륙 도시에 흩어질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던 것이다. 외국인인 마길라도라 지분의 49%만을 소유할 수 있었으나, 1973년에는 외국인이 섬유 및 의류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 마길라도라의 100%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Griffin and Crowley, 1989, pp.326-327).

(2) 제2단계(1974년~1976년) : 마길라도라의 침체기

1974년 미국의 경제불황이 멕시코 마길라도라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결국 제2단계의 2년 동안에 마길라도라 고용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해고되었다. 멕시코의 노동운동 때문에 미국 자본의 투자가 줄어들자 멕시코 정부는 마길라도라 산업이 멕시코 연방 노동법에 구애를 엄격하게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마길라도라의 견습기간(probation periods)은 30일 내지 90일 정도로 연장되었고, 견습공에게는 최소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다. 마길라도라는 필요에 따라 종업원을 해고할 수도 있었고, 작업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었다. 결국 제2단계 동안에 마길라도라의 노동조건은 심히 악화되었다.

표 1. 마길라도라 산업의 현황(1975년~1996년)

연도	기업 수	종업원 수 ()는 전체종업원 수에서 차지하는 구성비
1975	454	67,214
1980	620	119,546
1985	789	217,544
1990	1,920	446,258 (13.6%)
1991	2,013	486,723 (14.4%)
1992	2,129	511,339 (15.6%)
1993	2,195	541,233 (17.2%)
1994	2,064	600,229 (18.6%)
1995	2,056	601,269
1996	2,241	680,209

자료: 대외경연, 1996, p.490; Twin Plant, June 1996, p.43.

(3) 제3단계(1977년~1982년) : 마길라도라의 회복기

미국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자 마길라도라에 대한 투자가 서서히 증대되었다.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추진해 오던 멕시코는 점차적으로 수출지향적 발전전략을 지향하게 되었다.

(4) 제4단계(1983년~1989년) : 마길라도라의 성장기

1983년부터 마길라도라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상품의 20% 한도 내에서 멕시코 국내시장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멕시코가 경제자유화를 추진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좀더 자본집약적인 마길라도라가 들

어서도록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마길라도라 중에서도 기계류·전기전자제품·자동차부품의 제조업체를 가장 우선시할 계획임을 명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다수의 마길라도라가 세워졌고, 마길라도라 고용인구도 증가하였다.

1985년경 시우다드후아레스와 티후아나를 비롯하여 시우다드아쿠나(Ciudad Acuna), 아과프리스타(Agua Prieta) 등 국경지대의 거의 모든 도시나 타운에 이미 마길라도라가 들어서 있었다. 국경도시뿐만 아니라 치와와(Chihuahua), 헤르모시오(Hermosillo), 과달라하라(Guadalajara) 등의 내륙도시에서도 마길라도라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었다. 심지어 유카탄 반도의 메리다에도 마길라도라가 들어섰다(Griffin and Crowley, 1989, p.327).

국경지대 마길라도라 고용인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982년 이전까지 7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1982년을 기점으로 남성 비율(성비)이 급속히 높아졌다. 남성 비율은 1986년경에 50% 이상을 넘게 되었다. 1989년 시우다드후아레스의 마길라도라 고용인 중에서 남성비율은 82%에 달하였다(표 2). 이 기간 동안에 자동차 산업 등 몇 부문에서는 여성인력의 비율이 높아졌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마길라도라에서는 여성인력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다.

기존에 멕시코 국내시장을 겨냥하던 외국인소유 기업들이 마길라도라와 마찬가지로 수출시장을 겨냥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공장들은 사실상 마길라도라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즉, 법적으로는 마길라도라가 아니지만, 운영면에서는 마길라도라와 다름없는 공장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현상을 마길라화(maquilization) 혹은 마길라도라화(maquiladorization)라고 부른다.

(5) 제5단계(1989년 이후) : 멕시코 산업의 마길라도라화

1989년 멕시코 정부는 외국인 소유한도를 규정하는 법규를 폐지하였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광산업·석유화학산업·자동차부품산업·통신매체산업을 제외한 모든 멕시코 경제부문에서 외국인 소유지분을 49%까지로 제한하는 법규가 폐지되었다. 이미 1973년부터 마길라도라에 대하여 외국인이 100%지분을 소유할 수 있었으나, 1989년부터는 마

표 2. 마길라도라 고용인력의 성비(Sex Ratio;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

연도	성비(Sex Ratio)		
	멕시코 전체	티후아나	시우다드후아레스
1979년	30%	29%	25%
1980년	29%	29%	26%
1981년	29%	28%	27%
1982년	29%	27%	25%
1983년	34%	32%	32%
1984년	41%	38%	44%
1985년	45%	48%	49%
1986년	47%	52%	54%
1987년	52%	65%	64%
1988년	58%	70%	75%
1989년	63%	76%	82%

자료: Pick and Butler, 1994, p.377.

길라도라가 아닌 업체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살리나스 대통령은 “멕시코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멕시코 산업의 마길라화”를 필수적 조치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외국자본의 유치를 “멕시코 경제를 세계 경제에 편입시키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법적으로 마길라도라가 아닌 멕시코 산업이 수출지향적 생산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산요(Sanyo), 소니(Sony), 히타치(Hitachi) 등 일본 회사들은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에 공장을 건설하여 진출하였다. 근래에 한국의 삼성, 현대, 대우를 비롯한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도 다양한 업종에 진출하여 마길라도라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이나 한국의 대기업이 건설한 공장들은 미국에 진출한 회사의 분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래서 원료와 제품의 수출입 과정에서는 미국 회사로 취급을 받게 되어 있다.

NAFTA가 공식적으로 발효한 1994년 1월 1일 이후부터 미국인 혹은 캐나다인 소유의 마길라도라가 점차로 많은 양의 제품을 멕시코 국내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되고, 2001년 1월 1일부터는 생산한 제품 전부를 멕시코 국내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마길라도라 생산 제품의 내수판매 허용 비율은 1994년 55%, 1995년 60%, 1996년 65%, 1997

년 70%, 1998년 75%, 1999년 80%, 2000년 85%, 2001년 100%으로 된다. 2001년 1월 1일부터는 멕시코·미국·캐나다 사이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고, 마길라도라 프로그램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다(대의경연, 1996, pp.484-485; Kopinak, 1996, pp.10-18).

3. NAFTA의 연혁과 성격

멕시코는 1930년대 이래로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세장벽(tariff barriers)과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을 동원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였다. 1955년부터 1982년까지 수입허가품목이 증대됨으로써 보호장벽은 점점 높아졌다. 무역불균형과 외채문제로 국제수지가 최악으로 떨어진 1982년에 멕시코는 거의 모든 제품을 수입허가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었다(Lustig, 1992, p.114). 멕시코는 1982년 이후에 개방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규제보다는 시장경제, 공공소유보다는 민간소유, 보호보다는 경쟁을 지향하는 정책들이 입안되어 추진되었고, 관세장벽과 수입허가품목제에 의한 보호무역제도는 서서히 후퇴하였다. 이러한 개방정책 중에서 멕시코 경제에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이 NAFTA라고 할 수 있다.

1) NAFTA 추진과정

멕시코는 1986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하면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조치를 채택하였다. 멕시코는 GATT의 회원국으로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90년 3월 멕시코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구할 의사가 있음을 언론에 공표하였다. 미국과 캐나다 양국간에는 이미 1989년 자유무역협정(CFTA; U.S.-Canada Free Trade Agreement)이 가동함으로써 양국간 교역되는 상품의 70%는 무관세로 양국의 국경을 넘나들고 있었다. 1990년 6월 살리나스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사회 및 공공분야에서의 결속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고, 새로운 이해관계 형성을 통해 관계를 긴밀히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

1990년 9월 제9차 양국 고위각료회담을 통해 이민·국경·마약 문제,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양국간 현안문제에 관해 폭넓은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NAFTA 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고,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멕시코와 자유무역에 대한 협상을 추구하겠다는 미국 국회에 통고하게 되었다. 1991년 2월 멕시코·미국·캐나다 삼국 정상회담에서 NAFTA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1991년 6월부터 1992년 8월 12일까지 삼국 대표들이 협상분야를 무역장벽 완화 등 6개 분야, 22개 그룹으로 나누어 14개월간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마침내 1992년 12월 17일 삼국 정부는 이 협상안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NAFTA는 1994년 1월부로 발효하였다(대의경연, 1996, pp.121-122).

2) NAFTA에 대한 각국의 입장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주로 미국과 멕시코의 필요성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고 본다. 미국은 북미지역내의 국제분업을 통해 미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의 경제과탄으로 인해 미국 사회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멕시코 내에 친미 세력들이 주도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목표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점차 미주전역을 단일시장화하여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경제권, EU 중심의 유럽경제권에 대응하는 미주경제권을 구성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Bulmer-Thomas and Craske, 1994; Hufbauer and Schott, 1992).

멕시코는 막대한 외채문제, 치솟는 인플레이션, 계층간의 갈등 증가 등으로 국내외적인 위기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체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절박한 정치경제적 이유들을 갖고 있었다고 하겠다. 멕시코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전전략을 수정해야만 하였다. 멕시코는 기존의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수출주도산업화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외화를 긴급하게 벌어들이고 투자를 증대시켜 소득의 일반적 상승을 유도하고자 NAFTA를 추진하였다. NAFTA를 통하여 총교역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미국의 보증에 의한 단

기외채조정을 가능하게 하며, 미국 시장에서의 우회 접근을 위한 일본이나 한국의 경쟁적 투자를 유치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특히 경제적 · 심리적 안정을 통해 해외도피자금이 국내로 환류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멕시코의 경우에 비하면, NAFTA에 대한 캐나다의 참여는 비교적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 (Randall, 1992). 캐나다 측에서는 기존의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계속 효력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북미경제권에서 소외되거나 혹은 이 경제권이 오로지 미국의 독점하에 놓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NAFTA 구성국가들 사이에 자유무역이 신장되지만, 외적으로는 보호주의적 경제블록이 형성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한국 등 미국시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발전도상국은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중남미의 다수 국가들이 NAFTA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 몇 국가가 언제 어떻게 NAFTA에 가입하게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3) NAFTA가 멕시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점

실제에 있어서 마길라도라는 멕시코 정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하는 데 반하여 NAFTA는 이의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멕시코에 대한 NAFTA의 효과는 마길라도라가 멕시코에 미친 효과와 연속선상에 있다. 양 정책체제의 가장 큰 유사점은 멕시코의 저임금 노동력을 통한 상품생산과 이 상품들의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양 정책체제는 자본과 기술의 대미의 존성 심화와 멕시코 경제의 이중성 심화라는 측면에서도 유사하다. 상당수의 학자들은 NAFTA가 경제적으로 발전할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와 낙후를 면치 못할 멕시코 내륙지역 사이에 이중성을 심화시킬 것이고, 정치 · 경제 · 문화 체제에 이중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4년 12월에 시작하여 1995년 1월에 절정에 달했던 멕시코의 금융위기(Adler, 1995; Feltenstein and Shah, 1995; Payne, 1995)는 NAFTA 중심의 제반 미래 구상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금융 문제는 NAFTA를 반대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별로

강조되지 않은 측면이었다. 물론 자유무역시대가 초래할 금융의 불안정에 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시대의 설정을 반대 한 주요 이유는 고용 문제나 환경 문제 등과 같은 전통적 주제들에 근거하고 있었다. 1995년의 금융 위기에서 '미국연방은행의 이자율 인상'이라는 국제체제적 변수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멕시코의 국내정치적 변수들도 심대한 역할을 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멕시코의 금융시장에 투입되었던 핫머니들을 흡수한 가장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요인은 미국연방은행의 이자율 인상이었다. 멕시코의 금융 위기는 마살플랜 이래로 보기 드문 수준의 미국 원조를 통해 간신히 수습되었다.

NAFTA가 멕시코에 미칠 정치적 영향은 국내의 학계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정치분야에서 가장 빈번히 제기되는 질문은 NAFTA가 멕시코의 민주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점이다. Heredia(1994) 등의 학자들은 NAFTA가 멕시코의 민주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NAFTA가 민주적 체제의 핵심인 시민단체의 역동성을 증가시켜 민주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Castillo, 1992; Hoskins, MacFayden and Zolf, 1992; Silverman, 1992). 반면에 J. Castañeda(1993) 등의 학자들은 NAFTA가 멕시코의 정치에 미칠 영향을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 즉, 민주적 체제의 성립에 미치는 변수가 다양하므로 NAFTA만이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NAFTA로 인한 단기적 불안정성이 도리어 민주화 과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NAFTA가 멕시코의 경제체제에 미칠 영향은 Ramirez(1993)의 연구에 가설의 형태로 잘 정리되어 있다. Ramirez는 NAFTA가 멕시코의 대미의존성을 심화시키고 환경오염을 통하여 삶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흔히 NAFTA가 멕시코 측의 고용과 소득 및 이민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냐 소득의 불균형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결과도 초래할 것으로 예측한다 (Weinfeld, 1992; 김원호, 1994; 이성형, 1994; Zabin and Hughes, 1995). 미국 측에서 NAFTA를 통한 멕시코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1960년대 이후로 급증하고 있는 멕시코

의 불법이민 문제였다. 많은 연구들은 NAFTA가 장기적으로 북쪽으로 향하는 멕시코의 이민 행렬을 감소시킬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Mitchell, 1994).

NAFTA는 멕시코·미국·캐나다의 공업부문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Krooth 1995, pp.267-270)³⁾. 상당수의 학자들은 NAFTA가 멕시코의 농업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특수한 수출용 작물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멕시코 농산물은 미국의 농산물과의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NAFTA로 인해 멕시코 농가소득은 하락할 것이고, 이에 따라 농촌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Lustig, Bosworth, and Lawrence, 1992). 이러한 농촌문제의 발생을 인정하면서도 상황이 매우 다양하게 전개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소농이나 자영농들에게 NAFTA는 심대한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경쟁력이 있었던 상업작물 생산 농가에게 NAFTA가 보다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De Janvry, Sadoulet, and Gordilla, 1995).

NAFTA가 멕시코의 환경에 미칠 영향은 NAFTA의 비준을 둘러싸고 미국내의 환경단체들이 심도 있게 토론한 바 있다(Hufbauer and Schott, 1992).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와 환경단체들은 NAFTA가 멕시코 측의 환경덤핑(ecological dumping)으로 인한 환경위기(특히, 북부 국경지대에서의 환경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교정 가능성이다. 미국의 국립야생동물연방(the National Wildlife Federation)은 경제통합으로 인한 소득 수준과 환경규제 수준의 향상이 멕시코 환경의 수준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Sierra Club, Friends of the Earth, Public Citizens 등과 같은 단체들은 이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도리어 NAFTA가 미국의 환경수준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NAFTA가 멕시코에 미친 영향은 좀더 시간을 두고 관찰하여 평가할 문제지만, 기존에 수행된 상당한 수의 연구들은 자유주의적 논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정당화하려는 편향성이 있다. 자유주의적 논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간혹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지장을 줄 수도 있다. 또한

NAFTA는 최근에 성립된 지역통합체제인 까닭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 협정이 미래에 멕시코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이었다. 따라서 NAFTA가 현재 멕시코에 미치고 있는 영향, 특히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축적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4. 멕시코 북부지역의 도시·인구·하부지역

멕시코는 북위 22~23도를 경계로 북부지역(the North)과 남부지역(the South)으로 구분된다. 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하여 백인 인구구성비가 높다. 북부지역은 멕시코 영토의 60%를 차지하지만, 북부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는 멕시코 인구의 4분의 1에 불과하다(Crowley and Griffin, 1989, p.355).

식민지시대(1521년~1810년)에 멕시코 북부지역은 결코 주목 받는 지역이 아니었다.⁴⁾ 멕시코 북부지역은 19세기 말 디아스(Porfirio Diaz) 정권하에서 독자적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기여한 것으로는 국영철도체계의 건설, 미국과의 교역 증대, 마타모르스의 면화 생산, 탐피코의 석유 생산, 몬테레이의 철강산업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국영철도체계 건설을 통하여 북부지역은 멕시코 중앙고원과 연결될 수 있었다(Herzog, 1990, p.40).

멕시코 북부지역의 변화는 북부지역의 도시성장을 보면 알 수 있다. 1880년 몬테레이는 인구 1만6천으로 멕시코 서열 19위의 작은 도시에 불과하였다. 1880년 인구규모로 25위 이내에 들어가는 북부지역 도시는 몬테레이, 살티요(Saltillo), 헤르모시오(Hermosillo)의 세 도시뿐이었다. 그런데 1960년 몬테레이는 인구 50만이 넘는 멕시코 서열 3위의 거대도시이며, 멕시코시티 다음으로 중요한 산업도시로 발달하였다(Herzog, 1990, p.40). 특히 북부 국경지대의 도시들이 매우 급속히 성장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고찰한다.

멕시코 북부의 6개州(Baja California Norte, Sonora, Chihuahua, Coahuila, Nuevo Leon, and Tamaulipas)의 인구변화를 보면, 1970년~1990년 사

표 3. 북부지역 6개州的 인구변화

주(state)\인구	1970년	1980년	1990년	1980~1990년 (증가율)	1970~1990년 (증가율)
타마울리파스(Tamaulipas)	1,457,000	1,924,000	2,250,000	17%	54%
누에보레온(Nuevo Leon)	1,695,000	2,513,000	3,099,000	23%	83%
코아윌라(Coahuila)	1,115,000	1,557,000	1,972,000	27%	77%
치와와(Chihuahua)	1,613,000	2,005,000	2,442,000	22%	51%
소노라 (Sonora)	1,267,000	1,850,000	2,204,000	19%	66%
바하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870,000	1,178,000	1,161,000	41%	91%
북부 주의 총합(Total Border Region)	8,017,000	11,027,000	13,628,000	24%	70%
멕시코 전체인구(Nation)	48,225,000	66,847,000	81,250,000	22%	68%
국가 전체인구에서 북부 주의 총합이 차지하는 비율	16.6%	16.5%	16.8%		

자료: Pick and Butler, 1994, p.72.

이에 인구증가율이 70%인 것을 알 수 있다(표 3). 북부지역의 6개州가 상당히 높은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결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멕시코 전국의 인구증가율이 68%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Herzog(1990, p.40)은 멕시코 북부지역이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급속하게 성장하였다고 보고, 이러한 성장을 가능하게 해준 주된 요인은 다음의 두가지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나는 미국과의 교역 증대이고, 다른 하나는 북부지역에서의 상업농 성장이다. Herzog를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은 북부지역의 인구증가를 당연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을 해석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1990년 동안에 멕시코 북부지역의 인구는 멕시코 전국의 인구증가율과 거의 같은 비율로 성장하였다. 근래에 북부지역의 도시인구는 급속히 성장하였지만, 북부지역의 총인구는 멕시코의 다른 지역 인구변화와 비교하여 볼 때 특이하게 성장한 것은 아니었다.

오늘날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통근하는 멕시코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의 멕시코인 중에서 국경통과증(a border crossing card)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100만 명이 넘는다. 국경통과증을 갖고 있는 멕시코인은 국경에서 25마일 이내의 미국에서 72시

간 동안이나 체류할 수 있다. 국경통과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멕시코인이 미국에서 취업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 중에 다수가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 티후아나-샌디에이고의 국경 통근자를 설문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멕시코인들은 미국에서 서비스업(45.1%), 제조업(24.5%), 건설업(13.3%) 순으로 종사하고 있었다(Herzog, 1995, pp.181-182).

멕시코 북부지역은 결코 하나의 동질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 멕시코 북부지역은 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동서의 교류보다는 남북의 교류가 많았다. 멕시코 북부의 여러 하부지역(subregions)은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형상을 하고 있어서 동서의 이동이 그리 편리한 것이 아니다. NAFTA로 인하여 멕시코 북부의 여러 하부지역들은 동서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으로 통합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Kopinak, 1996, p.28).

멕시코 북부지역은 표 4와 같이 네 개의 하부지역 혹은 회랑지대(corridors)로 구분할 수 있다(Kopinak, 1996, p.29). 기능적으로 볼 때, 멕시코 회랑지대는 미국 내륙 쪽으로 깊숙이 연결된다. 1990년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州에서 벌목한 목재가 멕시코 엔세나다에서 가공처리됨으로써 멕시코의 태평양연안회랑지대가 심지어 캐나다까지도 연결된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표 4. 멕시코 북부의 허부지역(회랑지대)

회랑지대 명칭	이 회랑지대에 속하는 멕시코 도시	미국 쪽으로의 연결
태평양연안회랑지대 (Pacific coridor)	티후아나(Tijuana), 테카테(Tecate), 멕시코칼리(Mexicali), 엔세나다(Ensenada) 등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샌디에이고(San Diego) 등
서부회랑지대 (Western coridor)	노갈리즈(Nogales), 아과프리스타 (Agua Prieta), 마그달레나 (Magdalena), 산타아나(Santa Ana), 헤르모시오(Hermosillo) 등	피닉스(Phoenix), 투손(Tucson) 등
중앙회랑지대 (Central coridor)	시우다드후아레스(Ciudad Juarez), 치와와(Chihuahua) 등	엘파소(EI Paso) 등
멕시코만연안회랑지대 (Gulf of Mexico coridor)	시우다드아쿠나(Ciudad Acuna), 피드라스네그라스(Piedras Negras), 누에보라레도(Nuevo Laredo), 레이노사(Reynosa), 마타모로스 (Matamoros), 몬테레이(Monterrey), 살티요(Salttillo) 등	샌안토니오(San Antonio), 오스틴(Austin) 등

5.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의 ‘쌍둥이 도시화(twin urbanization)’ 현상

멕시코-미국의 국경선은 태평양에서 멕시코만까지 약 3,200km의 거리를 잇는다. 국경선 중앙 지점에 시우다드후아레스-엘파소가 위치한다. 시우다드후아레스-엘파소에서 멕시코만까지 위치하는 국경선 동부 절반은 리오그란데강을 따라 그어졌고, 시우다드후아레스-엘파소에서 태평양까지 위치하는 국경선 서부 절반은 인위적·기하학적 선을 따라 그어졌다. 오늘날의 멕시코-미국 국경선은 1848년에 과달루페히달고 조약(the Treaty of Guadalupe Hidalgo)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북부 국경지대(borderlands)를 한정적으로 의미할 때는 국경선에서 남으로 100km 이내에 해당하는 지대만을 의미한다. 1983년 멕시코와 미국 정부간에 국경지대의 환경보호를 위한 협정⁵⁾을 체결하였는데, 이 협정에서 언급하는 국경지대는 국경선에서 100km(약 60mile)까지 떨어진 지대를 지칭하였다.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는 바하칼리포니아(Baja California)주, 소노라(Sonora)주, 치와와(Chihuahua)주, 코아윌라(Coahuila)주, 누에보레온(Nuevo Leon)주, 타마울리파스(Tamaulipas)주의 6개주에 포함된다.

(Herzog, 1990, p.35).

19세기 후반에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는 멕시코의 미개척지(frontier)로 남아 있었고, 20세기 전반까지도 북부 국경지대에는 괄목할만한 개발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국경지대 전역에 걸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20세기 후반에 미국의 남서부 지역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수십여년 동안 공급하던 멕시코 이동노동자들이 북부 국경지대의 도시들에 영구적으로 정착하였다. 1980년경에 이미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는 멕시코 정치경제에서 고립된 황무지가 결코 아니었고, 경제적·사회적 기반(infrastructure)에 많은 투자가 이미 진행되어 있었다(Herzog, 1990, pp.4-5). 오늘날 멕시코의 북부 국경지대에서 멕시코 중앙고원으로 들어가는 주요 고속도로로는 태평양연안을 따라서 들어가는 고속도로, 서시에라마드레 산맥의 동부 산록부를 따라서 들어가는 고속도로, 멕시코 고원의 중심부를 따라서 들어가는 고속도로, 동시에 에라마드레 산맥을 따라서 들어가는 고속도로 등이 있다.

국경선에서 100km까지 떨어진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인구(1997년 현재)는 미국 쪽과 멕시코 쪽이 각각 500만이 넘기 때문에 양쪽 인구를 합치면

1,100만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쌍둥이 도시화(twin urbanization)'란 국경선에 접한 양국 지역에서 전개되는 도시화를 말한다. 즉, 국경선을 마주하여 입지하는 '쌍둥이 도시들(twin cities)'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달하는 현상이다. 멕시코-미국 국경의 쌍둥이 도시들은 마길라도라의 발달과 궤를 같이 하면서 급성장하였다(그림 1).

멕시코-미국 국경선을 맞대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주요 국경도시는 ①티후아나-샌디에이고, ②시우다드후아레스-엘파소, ③멕시코칼리-칼렉시코, ④누에보라레도-라레도, ⑤레이노사-맥칼렌, ⑥마타모로스-브라운즈빌, ⑦노갈리즈-노갈리즈, ⑧산루이스리오-유마 등이다. 국경선을 경계로 접하고 있는 도시들은 비교해 보면, 멕시코 쪽에 위치하는 도시들의 인구성장이 미국 쪽에 위치하는 도시들의 인구성장보다 빠르다.⁶⁾ 그리고 티후아나-샌디에이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멕시코 쪽 도시의 인구가 미국 쪽보다 크다(표 5). 샌디에이고는 해군기지의 입지, 쾌적한 기후환경, 거대도시 LA에서 근접한 입지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구가 티후아나보다 많은 예외적 경우라고 하겠다(Herzog, 1990, pp.49-51).

멕시코 도시 순위 10위권 이내에 드는 세 도시(Ciudad Juarez, Tijuana, Mexicali)가 북부 국경지대에 위치한다. 티후아나와 시우다드후아레스는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도시이다. 1900년 경에 시우다드후아레스는 인구 8,200여 명의 작은 국경 도시였고, 티후아나와 멕시코칼리는 작은 촌락에 불과하였다. 오늘날 시우다드후아레스와 티후아나는 각각 인구 100만 명, 그리고 멕시코칼리는 인구 70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표 6). 국경선에서 100km 이내에 해당하는 북부 국경지대는 이러한 도시들이 집중하여 있기 때문에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표 7).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의 공업발달은 한정된 도시에 국한되었는데, 이러한 도시에는 산업화에 따른 오염, 주택·상하수도·의료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도시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수의 도시 빈민들이 상하수도 설비나 위생변기 설비가 없는 판잣집(makeshift shanties)에 살고 있다. 예컨대 시우다드후아레스에는 대략 40만 명이 이러한 판잣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rooth, 1995, pp.286-287). 티후아나의 도시 주변부에서도 이러한 판잣집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표 5. 멕시코-미국 국경도시의 인구 비교

멕시코 국경도시	1983년 인구	1980년 인구	미국 국경도시
Tijuana	636,900	1,861,846	San Diego
Mexicali	446,900		Calexico
S.L. Rio Colorado	109,800		Yuma
Nogales	82,200	16,000	Nogales
Agua Prieta	34,400	13,000	Douglas
Ciudad Juarez	750,600	479,899	El Paso
Ciudad Acuña	41,900	30,000	Del Rio
Piedras Negras	113,700	20,000	Eagle Pass
Nuevo Laredo	287,000	99,258	Laredo
Reynosa	321,900	283,229	McAllen/Edinburg/Mi.
Matamoros	240,100	209,727	Brownsville/Harlington

자료: U.S. Bureau of Census, 1984; Mexico Banamex, 1983
(재인용: Herzog, 1990, p.51).

표 6. 멕시코 국경도시의 인구변화

도시명	1900	1920	1940	1960	1968	1977	1980	1990	1995
티후아나		3,500	16,500	151,900	297,000	438,000	428,000	747,000	989,000
멕시코칼리	2,600	7,000	18,800	172,000	347,000	360,500	511,000	602,000	696,000
노갈리즈	2,700	13,400	13,900	37,700	62,000	-	68,000	107,000	133,500
시우다드후아레스	8,200	20,000	48,900	262,200	477,000	570,400	567,000	850,000	1,010,000
누에보라레도	8,000	15,000	28,900	92,700	141,000	214,000	203,000	220,000	275,000
마타모로스	8,300	18,000	28,200	92,300	158,000	187,000	239,000	303,000	363,000

자료: Blouet and Blouet 1982: US/Mexico Border XXI Program [Draft Framework Document] 1996.

표 7.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국경에서 100km 이내 지역)의 인구

주(state) 이름	1990년 인구	1995년 인구(추정치)
바하 캘리포니아	1,401,000	2,108,000
소노라	395,000	440,000
치와와	870,000	1,085,000
코아윌라	191,000	230,000
누에보레온	17,000	18,000
타마울리파스	1,015,000	1,194,000
합 계	3,889,000	5,075,000

자료: US/Mexico Border XXI Program: Draft Framework Document, 1996, p.III.

6.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의 산업화와 고용구조

북부 국경지대의 산업화 계획은 이미 1960년대 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외국인 소유의 제조업체들이 다수 들어서게 된 것은 1980년대 이후 두드러

지게 나타난 현상이다.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를 따라 1982년에 588개 마길라도라에 122,000여 명이 고용되어 있었지만, 1991년에는 1,444개 마길라도라에 355,252명이 고용되어 있었고, 1996년 현재는 1,521개 마길라도라에 489,019명이 고용되어 있다(표 8과 표 9).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의 고용된 인원 중에서 시우다드후아레스, 티후아나, 멕시코칼리, 마타모로스, 레이노사, 노갈리츠의 6개 도시에 고용된 인원의 비율은 83%이다. 그리고 이 6개 도시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은 국경지대 총생산량의 87%에 해당한다.

1996년 6월 현재 총 2,241개의 마길라도라 중에서 67.9%에 해당하는 기업이 북부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마길라도라 기업수는 1990년~1996년 동안에 북부 국경지대에서는 6.7% 증가한 반면 내륙지역에서는 45.7% 증가하여 내륙지역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인구로 보면, 마길라도라 총고용인원 680,209명 중에서 71.2%에 해당하는 인원이 북부 국경지대의 마길라도라에 고

표 8. 북부 국경지대 도시별 마길라도라 기업수(1990년~1996년)

국경도시 명 (서쪽→동쪽)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Tijuana	469	492	535	565	461	466	515
Ensenada	39	37	46	50	51	50	53
Tecate	76	80	84	105	85	83	86
Mexicali	139	133	142	130	130	128	127
S.L. Rio Colo.	15	19	25	25	26	23	25
Nogales ①	61	67	69	78	76	76	77
Agua Prieta	26	26	35	34	30	30	30
Cd. Juarez ②	275	260	271	247	241	239	263
Cd. Acuna	47	46	53	50	51	51	52
Piedras Negras	45	42	47	42	42	44	43
Nuevo Laredo	65	64	60	54	54	53	51
Reynosa	75	82	98	78	82	78	80
Matamoros ③	94	96	95	129	131	126	119
국경지역 합계	1,426	1,444	1,560	1,587	1,460	1,447	1,521
내륙지역 합계	494	569	569	608	604	609	720
전국 합계	1,920	2,013	2,129	2,195	2,064	2,056	2,241

① Magdalena de Kino 포함

② Rodrigo M. Quevedo 포함

③ Rio Bravo 포함

자료: 대외경연, 1996, p.493; Twin Plant June 1996, p.43.

표 9. 북부 국경지대 도시별 마길라도라 고용원수(1988년~1996년)

국경도시 명 (서쪽→동쪽)	1988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Tijuana	51,496	62,632	68,547	81,690	85,097	86,005	99,483
Ensenada	1,282	2,590	3,087	3,711	4,725	4,304	6,083
Tecate	4,367	4,738	5,020	6,249	8,519	8,305	9,801
Mexicali	19,775	20,151	19,819	19,995	22,912	22,787	27,250
S.L. Rio Colo.	2,808	2,641	4,346	3,735	4,891	4,873	6,960
Nogales ①	12,242	18,090	19,343	19,495	21,392	21,588	24,079
Agua Prieta	6,034	5,938	7,607	7,277	8,739	8,739	8,540
Cd. Juarez ②	115,026	125,383	129,799	130,591	148,905	151,168	169,171
Cd. Acuna	12,105	17,017	19,578	18,749	19,650	19,032	22,384
Piedras Negras	7,177	7,905	8,477	9,046	9,846	9,439	9,989
Nuevo Laredo	12,288	16,915	15,722	16,204	18,428	18,207	18,630
Reynosa	21,916	30,732	32,217	34,305	39,224	19,174	40,044
Matamoros ③	35,695	38,051	36,610	43,287	47,010	47,819	46,605
국경지역 합계	312,426	355,252	373,259	394,334	439,338	441,440	489,019
내륙지역 합계	77,034	131,471	138,080	146,899	160,891	159,829	191,190
전국 합계	389,245	486,723	511,339	541,233	600,229	601,269	680,209

① Magdalena de Kino 포함

② Rodrigo M. Quevedo 포함

③ Rio Bravo 포함

자료: 대외경연, 1996, p.494; Twin Plant June 1996, p.43.

용되어 있다. 마길라도라 고용원수는 1988년~1996년 동안에 국경지역에서는 53.6% 증가한 반면 내륙지역에서는 24.8% 증가하여 내륙지역 신장세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6년 6월 현재 마길라도라 기업들이 가장 밀집해 있는 도시는 티후아나로 전체 마길라도라 기업수의 23.0%에 해당하는 515개 기업이 입지하고 있다. 이는 북부 국경지대의 마길라도라의 33.8%에 해당하는 기업수이다. 그러나 고용원수를 보면, 시우다드후아레스가 1996년 6월 현재 전체 마길라도라 기업 종업원수의 24.9%인 169,171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티후아나에 기술집약적 혹은 자본집약적 산업이 몰려 있고, 시우다드후아레스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다(대외경연, 1996, pp.492-493).

7. 맺는 말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는 미국에 인접한 지역으

로서 미국의 경제적·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아 왔으며, 이 지역 경제는 하청업체·수출입기업·관광산업 등에 의하여 움직여져 왔다. 특히 NAFTA 체결을 전후하여 미국·일본 등의 선진국 자본이 적극적으로 투자됨으로써 제조업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산업이 활발하게 유치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삼성, 현대, 대우 등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최근에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에 진출하여 NAFTA를 극복하거나 이용하고 있다. 멕시코의 공업발전이 한국의 공업발전 과정을 가깝게 뒤쫓고 있다는 점에서 멕시코는 한국의 강력한 경쟁 상대국이라고 하겠다. 미국·멕시코·캐나다 삼국의 경제블록 형성으로 인하여, 한국은 미국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맞이하게 된다.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의 산업 발달은 멕시코인들에게는 고용기회를 확대시키고 미국인들에게는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나 북부 국경지대에는 밀입국이나 마약과 관련된 불법활동, 관광산업과 관련된 매춘·도박·협

잡, 스페인어와 영어의 혼합으로 인한 언어의 타락 등 미국과 인접하여 있음으로써 부정적 측면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화는 20세기 말에 이르러 범지구적인 현상이 되어 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로 제3세계의 발전을 선도한 신흥공업국들은 국제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국제화시대에 대응하는 멕시코 발전전략의 핵심이다. 멕시코는 1910년의 혁명 이래로 유지해 온 민중주의적 발전모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입각한 새로운 발전모델을 정착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조합주의적 민중주의 체제가 운영하던 수입대체 산업화의 애로를 극복하고 신자유주의적 지배연합이 주도하는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채택하려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의 경제구조 변화를 NAFTA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는 NAFTA의 영향을 가장 심대하게 받는 지역이다.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북부 국경지대는 필연적으로 낙후를 면치 못하는 남부지역과 대조를 이루게 되면서 멕시코의 지역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다. 국경지대의 '쌍둥이 도시화' 현상은 멕시코의 대미의존도 심화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자본, 기술, 노동력 등이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에서 시작하여 전 지역으로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1995년의 멕시코 금융위기는 현 국제체제가 지향하는 발전전략의 하나인 지역통합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속적인 지역통합의 추세로 보아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나라가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혹은 '동북아경제권' 등의 지역통합구상에 대하여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훈을 줄 수도 있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고, 남북의 양체제는 휴전선을 맞대고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한반도의 통일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예측하고 있다. 만일 평화적 통일이 그리 멀지 않았다면, 통일 이후의 남북 경제교류는 어떤 양상으로 발전할 것인가?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을 필

요가 있다. 그런데 NAFTA는 경제수준의 차가 큰 두 체제 사이의 경제통합이라는 점에서, NAFTA 이후에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에서 일어나는 지역 변화에 대한 연구는 한반도 평화 통일 이후에 남북의 경제교류에서 파생되는 변화를 예측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註

- 1) 민영화는 공기업을 민간부문에 매각하거나 양여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균형을 변형시키는 모든 정책을 의미한다. 민영화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좀더 의존하는 다양한 방식을 수반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국가마다 다르게 진행된다. 1940년대 이후로 1980년경까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로 증대되었다. 총고정자본 형성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대에 평균 13.7%를, 그리고 1970년대에는 20.5%를 점유하였다. 멕시코를 비롯하여 브라질, 페루, 베네수엘라 등에서는 1980년 초에 공기업이 공공부문 예산의 50% 이상을 점유하였다(Teichman, 1995, pp.12-13). 근래에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책 현상에 틀림없다. 멕시코에서는 민영화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이 공식적 자리에서는 민영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2) 국경지대 마킬라도라 고용인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2년 이전에는 70%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나, 여성 비율은 점차로 낮아져 1989년에 이미 30% 이하로 줄어들었다.
- 3) 미국은 농산물의 25%를 수출하고 있다. 1992년 미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400억불이고 농산물 수입액은 220억불이었다. 미국의 농업 생산성은 점차로 증대되고 있지만, 농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는 그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수출 시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멕시코는 경제성장과 인구성장으로 인하여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이고, 그만큼 미국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지만 멕시코의 과일과 채소 값은 미국의 것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과일이나 채소를 산출하는 미국 농부들은 보다 낮은 값으로 시장에 출하하든지 아니면 다른 작물 재배로 전환해야 할 지도 모른다.
- 4) 식민지 시대에 관심을 끌었던 지역은 멕시코 중앙고원(Mexico's central plateau)의 비옥한 분지들과

서시에라마드레산맥(Sierra Madre Occidental)의 은광산 지대였다. 식민지시대에는 멕시코 중앙고원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였다.

- 5) The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in the Border Area.
- 6) 현재까지는 미국 쪽의 국경도시가 내륙의 다른 미국도시에 비하여 경제성장이 빠르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NAFTA로 인하여 자본 · 상품 · 노동의 흐름이 가속화된다면, 이 상황은 바뀌게 될 지도 모른다.

文 獻

1) 국내문헌

강명구, 1994, "멕시코의 maquiladora 산업화 정책: 새로운 발전 모델로서의 실상과 허상",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17-234.

김병국, 1995, "멕시코의 딜레마: 시장과 체제의 모순", *라틴아메리카 연구*, 8, 9-69.

김병국, 1992, "자유주의", *현대국제정치학*(이상우 · 하영선, 공편), 나남, 서울.

김성한, 1995,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패권과 동반의 기로에서", *계간 사상*(사회과학원), 가을호, 49-78.

대외경연, 1996, 멕시코 편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민준기 外 共譯, 1989,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 정치경제학을 중심으로*(원저: Skidmore, T.E. and Smith, P.H., 1984, *Modern Latin America*,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법문사.

백종국, 1990, "한국의 지배연합과 산업화전략 -멕시코와의 비교-", *한국정치경제론*, 373-427.

백종국, 1991, "민주주의적 혁명과 발전의 딜레마 -멕시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논총*, 31, pp.259-283.

백종국, 1992, "멕시코의 체제변동과 경제위기", *국제정치논총* 32, 61-84.

백종국, 1993, "멕시코의 살리나스 개혁성과", *HRI Forum*, 20-33.

백종국, 1994, "멕시코: 신자유주의의 선두주자", *계간 사상*(사회과학원), 가을호, 49-78.

서경원 譯(巢山靖司 著), 1985, *라틴아메리카의 변혁사*, 백산서당, 서울.

이병석, 1988, *제3세계 토지개혁과 정치발전*, 영광출판사, 서울.

이 전, 1992, "라틴아메리카 원주민과 원주민문화, 그리고 그 문화유산", *문화역사지리*, 4, 305-319.

이 전, 1994, *라틴아메리카 지리*, 민음사, 서울.

이 전, 1995, "라틴아메리카 토지제도", *사회과학연구*, 13(2), 185-210.

2) 국외문헌

Aaronson, Susan Ariel, 1996, *Trade and the American Dream: A Social History of Postwar Trade Policy*,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Lexington, Kentucky.

Abler, D.G. and Pick, D., 1993, NAFTA,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 in Mexico,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5, 794-798.

Acuna, Rodolfo F., 1996, *Anything but Mexico: Chicanos in Contemporary Los Angeles*, Verso, New York.

Adler, M., 1995, Mexico devaluation-the beginning, not the end, of its problems,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30, 112-130.

Alternativas para El Futuro, 1991, *El Acuerdo de Libre Comercio Mexico-Estados Unidos*, Editorial Diana, Mexico.

Angel Centeno, Miguel, 1994, *Democracy Within Reason: Technocratic Revolution in Mexico*,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University Park.

Augelli, John P., 1962, The rimland-mainland concept of culture areas in Middle America,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52(2), 119-129.

Baer, M. Delal, 1996, The new order and disorder in U.S.-Mexican relations, in Charles F. Doran and Alvin Paul Drischler(eds.), *A New North America: Cooperation and Enhanced Interdependence*, Praeger, Westport, CT, 3-28.

Back, Jong Gook, 1990, Politics of late industrialization: the origins and processes of automobile industry policies in Mexico and South Korea, Ph.D. Dissertation, UCLA.

Basañez, Miguel, 1995, Winners and losers of NAFTA in Mexico, in Brenda M. McPhail(ed.), *NAFTA Now: The Changing Political Economy of North America*, University Press of America, Lanham, Md., 1-15.

Bennett, Douglas C. and Sharpe, Kenneth E, 1985, *Transnational Corporations Versus the State: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Mexican Auto Industr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Bernard, Elaine, 1995, Free trade or free corporation, in Brenda M. McPhail(ed.), *NAFTA Now: The Changing Political Economy of North America*, University Press of America, Lanham, Md., 65-76.
- Black, Jan Knippers(ed.), 1984, *Latin America, Its Problems and Its Promise: A Multidisciplinary Introduction*, Westview Press, London.
- Blakemore, H. and Smith, C.T.(eds.), 1983. *Latin America: Geographical Perspectives*(2nd. ed.), Methuen, London.
- Blouet, Brian W. and Blouet, Olwyn M.(eds.), 1982. *Latin America: An Introductory Survey*, John Wiley, New York.
- Bouzas, Roberto and Ros, Jaime, 1994, *Economic Integration in the Western Hemispher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Notre Dam.
- Bulmer-Thomas, Victor and Craske, Nikki(eds.), 1994, *Mexico and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Who Will Benefit?* Macmillan, London.
- Cardoso, F.H. and Faletto, E., 1979, *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Castañeda, Jorge G., 1993, Can NAFTA change Mexico?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66-80.
- Castillo Vera, Gustavo del, 1992, Institutional concerns and mechanisms developing from tripartite free trade negotiations in *North America*, in Stephen J. Randall(ed.), *North America Without Borders?* University of Calgary Press, Calgary, 41-54.
- Cohen, Ronald, and Service Elman R.(eds.), 1978, *Origins of the State: The Anthropology of Political Evolution*, Institute for the Study of Human Issues, Philadelphia.
- Crowley, William K. and Griffin, Ernest C., 1989, Culture areas in Mexico, in Robert C. West and John P. Augelli, *Middle America; Its Lands and Peoples*,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339-364.
- Davis, Diane E., 1993, The dialectic of autonomy: state, class, and economic crisis in Mexico, 1958-1982, *Latin American Perspective* 20(Summer).
- DeBlij, H.J. and Muller, Peter O., 1994, *Geography: Realms, Regions and Concepts*, 7th ed., John Wiley & Sons, New York, 171-217, 265-299.
- De Janvry, Alain; Sadoulet, Elisabeth; and Gordillo de Anda, Gustavo, 1995, NAFTA and Mexico's maize producers, *World Development* , 23, 1349-1362.
- Doran, Charles F., 1994, Introduction: the trade and political party flip-flop, in Charles F. Doran and Gregory P. Marchildon(eds), *The Nafta Puzzle: Political Parties and Trade in North America*, Westview Press, Boulder, 1-8.
- Doran, Charles F., 1996, Introduction: after NAFTA, in Charles F. Doran and Alvin Paul Drischler, *A New North America: Cooperation and Enhanced Interdependence*, Praeger, Westport, CT, xi-xviii.
- Druhe, Virginia, 1995, A view of Nafta's problems, in Brenda M. McPhail(ed.), *Nafta Now: The Changing Political Economy of North America*, University Press of America, Lanham, Md. 17-21.
- Dunn, Timothy J., 1995, *The Militarization of the U.S.-Mexico Border, 1978-1992: Low-Intensity Conflict Doctrine Comes Home*, The Center for Mexican American Studie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Austin.
- Feinberg, Richard E., 1995, Sustaining and consolidating Latin America's recovery, in Jorge A. Lawton(ed.), *Privatization amidst Poverty: Contemporary Challenges in Latin American Political Economy*, Lynne Rienner Publishers, Boulder, 1-8.
- Feltenstein, A. and Shah, A., 1995, General equilibrium effects of investment incentives in Mexico,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 46, 253-269.
- Gabriel, C., and MacDonald, L., 1994, NAFTA, Women and organizing in Canada and Mexico: forging a feminist internationality, *Mille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3, 535-562.
- Garret, Geoffrey, and Lange, Peter, 1995, Internationalization, institutions, and political cha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 49 (Autumn 1995), 657-688.
- Gladwin, C.H., and Thompson, C.M., 1995, Impacts of Mexico trade openness on Mexican rural wome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 Economics*, 77, 712-718.
- Globerman, Steven, 1994, The economics of NAFTA, in Alan M. Rugman(ed.), *Foreign Investment and NAFT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Columbia, S.C., 3-26.
- Globerman, Steven and Walker, Michael(eds.), 1993, *Assessing NAFTA: A Trinational Analysis*, Fraser Institute,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 Gonzalez Casanova, Pablo, 1970, *Democracy in Mexico*,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 Gourevitch, Peter, 1978, The second image reversed: the international sources of domestic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2(Autumn), 881-911.
- Griffin, Ernest C. and Crowley, William K., 1989, The people and economy of modern Mexico, in Robert C. West and John P. Augelli, *Middle America; Its Lands and Peoples*,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284-338.
- Haces, Gutierrez and Teresa, Maria, 1992, The place of Canada in United States-Mexico economic relations, in Stephen J. Randall(ed.), *North America Without Borders?* University of Calgary Press, Calgary, 111-118.
- Hamilton, Nora, 1982, *The Limits of State Autonomy: Post-Revolutionary Mexico*,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Hansen, Roger D., 1971, *The Politics of Mexican Developmen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 Hellman, Judith Adler, 1994, *Mexican Lives*, The New Press, New York.
- Helms, M.W., 1975, *Middle America: A Culture History of Heartland and Frontier*, Prentice-Hall.
- Hennessy, A., 1978, *The Frontier in Latin American History*, Edward Arnold.
- Heredia, Carlos A., 1994, NAFTA and democratization in Mexico",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8(Summer).
- Herzog, Lawrence A., 1990, *Where North Meets South: Cities, Space, and Politics On the U.S.-Mexico Border*, Center for Mexican American Studies,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Austin.
- Herzog, Lawrence A., 1995, Border commuter workers and transfrontier, in Oscar J. Martinez(ed.), *U.S.-Mexico Borderlands: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A Scholarly Resources Inc. Imprint, Wilmington, DE., 176-189.
- Hoskins, Colin; McFayden, Stuart and Zolf, Dorothy, 1992, Canada-Mexico co-production agreement on film and television programming, in Stephen J. Randall(ed.), *North America Without Borders?* University of Calgary Press, Calgary, 1295-302.
- Hufbauer, Gary Clyde and Schott, Jeffrey J., 1992, *North American Free Trade : Issues and Recommendation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 James, Preston E. and Minkel, Clarence W., 1986, *Latin America*(5th ed.), John Wiley and Sons, New York.
- Knight, Franklin W. and Palmer, Colin A.(eds.), 1989. *The Modern Caribbea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Chapel Hill, N.C.
- Kopinak, Kathryn, 1996, *Desert Capitalism: Maquiladoras in North America's Western Industrial Corridor*, University of Arizona Press, Tucson.
- Krooth, Richard, 1995, *Mexico, Nafta and the Hardships of Progress: Historical Patterns and Shifting Methods of Oppression*, McFarland & Compny, Inc., London.
- Lawton, Jorge A.(ed.), 1995, *Privatization amidst Poverty: Contemporary Challenges in Latin American Political Economy*, Lynne Rienner Publishers, Boulder.
- Lawton, Jorge A., 1955, Conceptualizing development: moving beyond linear northern perspectives, in Jorge A. Lawton(ed.), *Privatization amidst Poverty: Contemporary Challenges in Latin American Political Economy*, Lynne Rienner Publishers, Boulder, 15-36.
- Lustig, Nora, 1992, *Mexico: the Remaking of an Economy*,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 Lustig, Nora, 1994, NAFTA: potential impact on Mexico's economy, in *Economic Integration in the Western Hemisphere*, in Roberto Bouzas and Jaime Ros,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Notre Dam, 46-80.
- Lustig, Nora; Bosworth, Barry and Lawrence, Robert(eds.), 1992, *North American Free Trade: Assessing the Impact*,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 Maxfield, Sylvia, 1990, *Governing Capital: International Finance and Mexican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 McVey, Daniel J., 1995, The NAFTA dilemma, in Brenda M. McPhail(ed.), *NAFTA Now: The Changing Political Economy of North America*, University Press of America, Lanham, Md., 95-98.
- Marchildon, Gregory P., 1994, Trade and political party orientation in North America, in Charles F. Doran and Gregory P. Marchildon, *The Nafta Puzzle: Political Parties and Trade in North America*, Westview Press, Boulder, 9-31.
- Marshall, Ray, 1994, Internationalization: implications for worker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8(Summer), 59-94.
- Martinez, Oscar J.(ed.), 1995, *U.S.-Mexico Borderlands: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A Scholarly Resources Inc. Imprint, Wilmington, DE.
- Meyer, Michael C. and Sherman, William L., 1987, *The Course of Mexican History*(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Mitchell, Christopher, 1994, International migration as an issue on today's inter-American agenda,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36(Fall), 93-110.
- Moss, Jr., Ambler H.(ed.), 1993, *Assessments of the NAFTA*, Lynne Rienner, Boulder.
- Nevitte, Neil, 1995, Why NAFTA now? in Brenda M. McPhail(ed.), *NAFTA Now: The Changing Political Economy of North America*, University Press of America, Lanham, Md., 27-48.
- Ortiz, Edgar, 1994, NAFTA and foreign investment in Mexico, in Alan M. Rugman, *Foreign Investment and NAFT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Columbia, S.C., 155-179.
- Pastor, Manuel and Wise, Carol, 1994, The origins and sustainability of Mexico's free trade polic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8 (Summer), 459-490.
- Paige, Jeffrey, 1975, *Agrarian Revolution*, Free Press, New York.
- Pastor, Robert A., 1993, *Integration with Mexico: Options for U.S. Policy*, The Twentieth Century Fund Press, New York.
- Paterson, J.H., 1994, *North America*,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421-436.
- Payne, D.W., 1995, How investment bankers ruined Mexico: Wall-Street blues, *New Republic* 212, 20-22.
- Pick, James B. and Butler, Edgar W., 1994, *The Mexico Handbook: Economic and Demographic Maps and Statistics*, Westview Press, Boulder.
- Poitras, G. and Robinson, R., 1994, The politics of NAFTA in Mexico,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36, 1-35.
- Preston, D.(ed.), 1987. *Latin American Development: Geographical Perspectives*, Wiley.
- Ramirez, Miguel D., 1993, Stabilization and trade reform in Mexico: 1983-1989, *The Journal of Developing Areas*, 27(January), 173-190.
- Randall, Stephen J.(ed.), 1992. *North America Without Borders?: Integrating Canada,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University of Calgary Press, Calgary, Canada.
- Reynolds, Clark W., and Tello, Carlos(eds.), 1983, *U.S.-Mexico Relations: Economic and Social Aspects*,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 Rogowski, Ronald, 1989, *Commerce and Coalitions: How Trade Affects Domestic Political Alignment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Rugman, Alan M., 1994, *Foreign Investment and NAFT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Columbia, S.C.
- Schwartz, Mildred, 1995, NAFTA: Where are we Going? in Brenda M. McPhail(ed.), *NAFTA Now: The Changing Political Economy of North America*, University Press of America, Lanham, Md., 1-15.
- Serrano, M., 1995, The armed branch of the state: civil-military relations in Mexico,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27(May), 423-448.
- Silverman, Sheldon A., 1992, Reflections on the cultural impact of 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in Stephen J. Randall(ed.), *North America Without Borders?* University of Calgary Press, Calgary, 307-312.
- Silvers, Arthur L., 1995, Labor supply policy and U.S.-Mexican trade: sectoral and regional perspectives, *Arizon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College of Law, University of Arizona, Vol.12(12), 637-652.
- Silvers, Arthur L. and Pavlakovich, Vera K., 1994, Maquila industry impacts on the spatial redistribution of employment, *Journal of Borderlands Studies*, Vol.9(2), 47-64.

- Skidmore, Thomas E. and Smith, Peter H., 1989, *Modern Latin America*(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Stoddard, Ellwyn R., 1987, *Maquila: Assembly Plants in Northern Mexico*, The University of Texas at El Paso, El Paso.
- Story, Dale, 1986, *Industry, The State, and Public Policy in Mexico*,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 Tanski, Janet M., 1993, Capital concentration, Mexican conglomerates, and the proposed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25(December).
- Teichman, Judith A., 1995, *Privatization and Political Change in Mexico*,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Pittsburgh.
- Vega-Canovas, Gustavo, 1994, Free trade policy 'revolution' and party politics in Mexico, in Charles F. Doran and Gregory P. Marchildon(eds.), *The Nafta Puzzle: Political Parties and Trade in North America*. Westview Press, Boulder, 197-221.
- Vernon, Raymond, 1965, *The Dilemma of Mexico's Development: The Roles of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 Wager, S.J. and Schulz, D.E., 1995, Civil-military relations in Mexico: the Zapatista revolt and its implications,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37, 1-42.
- Weinfeld, Morton, 1992, North American integration and the issue of immigration: Canadian perspectives, in Stephen J. Randall(ed.), *North America Without Borders?* University of Calgary Press, Calgary, 153-168.
- Weintraub, Sidney, 1995, For better or worse, in Brenda M. McPhail(ed.), *Nafta Now: The Changing Political Economy of North America*, University Press of America, Lanham, Md., 1-15.
- Weintraub, Sidney, 1996, Next steps: policy options after NAFTA, in Charles F. Doran and Alvin Paul Drischler(eds.), *A New North America: Cooperation and Enhanced Interdependence*, Praeger, Westport, CT., 131-149.
- West, Robert C. and Augelli John P., 1989, *Middle America; Its Lands and Peoples*,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 Weston, Ann, 1994, *The NAFTA Papers: Implications for Canada, Mexico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North-South Institute, Ottawa, Canada.
- Wrona, Remi L., 1995, The NAFTA dilemma, in Brenda M. McPhail(ed.), *NAFTA Now: The Changing Political Economy of North America*, University Press of America, Lanham, Md., 23-26.
- Zangari, B.J., 1994, *NAFTA: Issues, Industry Sector Profiles and Bibliography*, Nova Science Publisher, Inc., Commack, N.Y.